



역학 1. 암

KSPM-42

우리나라 암검진 수검률의 추이 및 사회경제적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1995, 1998, 2001년 자료를 중심으로- Cancer screening participation rate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1995, 1998,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이지영¹⁾, 최귀선¹⁾, 박기호¹⁾, 박은철¹⁾

(1) 국립암센터 연구소

목적: 암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암발생과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암으로 인한 발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조기검진이 필수적이며, 암검진에 대한 수검률 추이를 파악하고,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단위 인구에서의 수검률에 관한 연구는 몇몇의 단면연구가 발표되었지만, 특정 지역사회에 국한되었거나, 특정암만을 다루거나 연구 대상이 작은 점 등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표본의 대표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3개년도에서의 암검진 수검율을 분석하여, 암종별 수검 추이 및 암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95, 1998, 2001년도 자료를 수집해서, 질병력, 이환유무를 제외하고, 연령이 30대 이상인 대상자로 총 19,265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암검사 수진 여부는 '지난 2년간 암검사를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암검사 수진과 사회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계적인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결과: 위암의 수검률은 1995년, 1998년, 2001년도 각기 남녀를 합쳐서 7.0%, 10.7%, 12.2%로 증가하였고, 간암은 6.6%, 8.6%, 9.4%로, 폐암은 4.7%, 6.5%, 7.5%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데 반해, 대장암은 3.8%, 6.2%, 5.6%로 2001년도에 오히려 조금 감소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유방암은 6.6%, 13.6%, 18.0%로 1995년을 기준으로 1998년에 2배, 2001년에 약 3배의 높은 수검률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자궁암도 유방암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1995년 초기년도부터 수검률이 22.4%로 다른 암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1998년에는 34.0%, 2001년에 36.1%로 매우 높은 수검률을 보여주고 있다. 수검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변수인 수입, 교육, 직업 및 결혼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3개년도에서 수입이 100만원미만 그룹에 비해 200만원이상인 그룹이 수검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암종별 3개년도 평균 OR:1.5,1.8,1.5). 교육상태의 경우 초등학교 학력 그룹에 비해 대학이상의 학력이 수검률이 높았다(암종별 3개년도 평균 OR:1.8,1.7,1.6). 특히 자궁암의 경우는 3개년도 모두에서 수입과 교육뿐만이 아닌 결혼상태에 따라 수검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론: 향후 우리나라의 암조기검진에 대한 수검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암검진 관리와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SPM-132

Dietary Fat Intake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Korea

신명희¹⁾, 김나연¹⁾, 남석진²⁾, 양정현²⁾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목적: Although the role of dietary fat intake has been researched meticulously, a definite conclusion have not been reached yet. A few recent cohort studies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showed small increase in risk of breast cancer by higher intake of animal or saturated fat.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ake of total fat, saturated fat, mono-unsaturated fat, and polyunsaturated fat,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among Korean women, a low fat intake population.

방법: Cases were newly diagnosed and pathologically confirmed, and the controls were non-cancer patients recruited from 7 clinical departments in the same hospital. The age range was between 30 and 70 years old.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for dietary intake using 94-104 item food-frequency questionnaire. Total calorie and nutrient calculation was based on the Korean food composition table. Energy adjusted nutrient intakes were calculated using the residual method. We excluded those who reported total calories >3500 kcal/day or <500 kcal/day. A total of 1,371 breast cancer cases and 927 control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ge-adjusted (aOR) and multivariate odds ratios (m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were estimated.

결과: Among controls, the mean of energy adjusted intake was 38.3g/day for total fat, 8.7g/day for saturated fat, 8.1g/day for monounsaturated fat, 6.2g/day for polyunsaturated fat. In general, dietary fat intake did not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breast cancer risk. The mORs of breast cancer among women in the highest compared to the lowest quintile of energy-adjusted intake were 1.09 (95%CI, 0.78 to 1.54, p_{trend}=0.35) for total fat, 0.76 (95%CI, 0.46 to 1.28, p_{trend}=0.14) for saturated fatty acid, 1.24 (95%CI, 0.67 to 2.31, p_{trend}=0.36) for monounsaturated fatty acid, and 1.49 (95%CI, 0.98 to 2.67, p_{trend}=0.03) for polyunsaturated fatty acid. Among postmenopausal women, total fat had weak association with breast cancer risk (mOR=1.78, 95%CI, 0.93 to 3.43, p_{trend}=0.04). Among premenopausal women, polyunsaturated fatty acid had weak association (mOR=1.61, 95%CI, 0.96 to 2.71, p_{trend}=0.04).

고찰: Although dietary fatty acids were generally not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polyunsaturated fatty acid had weak association with the risk of premenopausal breast cancer. Also, total fat intake had weak association with the risk of postmenopausal breast cancer. More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current results and evaluate further the associations between spe-

KSPM-150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 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에 대한 연구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parents on how to manage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권은경¹⁾, 김순덕²⁾, 이준영²⁾, 안효섭³⁾, 이제숙²⁾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목적: 소아암은 1세이상의 소아 사망원인에서 사고사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암 그 자체가 요인이라기보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아암 환자의 장기생존을 위해서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그에 대한 지식이 환아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태도와 실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태도가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 소아암 부모의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소아암 환아 부모에 대한 교육적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부모 165명을 대상으로 환아가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중이거나 외래방문 중일 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pearson's correlation & partial correlation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0)를 사용하였다.

결과: 소아암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의 평균점(12.98점)은 높았으나, 최소값(3점)과 최대값(15점)의 차이가 컸으며, 평균의 태도(4.15점)와 실천수준(4.24점)은 적극적이었다.

지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월수입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로 나타났으며, 실천수준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었다. 지식·태도·실천의 상관성 분석에서 지식과 태도, 태도와 실천 사이에선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지식과 실천 사이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소아암 환자 부모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환아를 직접 간호하는 부모의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점 1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12.98점이었으며,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5점이고,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환아 나이, 진단명,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경제수준, 직업,

학력이었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15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출생순위, 재발 여부,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였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실천수준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24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경제수준의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부모의 성별(P=0.07)이었다. Multiple regression 결과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경제수준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였고, 실천수준에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 유의한 변수였다.

Pearson's correlation에선 각각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Partial correlation에서는 지식과 실천사이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KSPM-157

5대암 조기검진 수검률 전국 조사

Nationwide survey on the participation rate in the screening for 5 major cancers

김동현¹⁾, 조희숙²⁾, 최용준¹⁾, 이훈재³⁾, 주영수⁴⁾, 이태진¹⁾, 조형원⁵⁾, 배상수¹⁾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5)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암검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생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을 구성해 암 검진 수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은 남자 40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으로 서울, 부산/대구, 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 동지역, 기타 시도 읍면지역의 5개 구역으로 층화한 후 성별, 연령별로 표본 규모 모집단에 비례하여 대상수를 할당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번호추출(Random digit dialing)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고, 이들에 대해 각종 인구학적 특징, 과거 일생 동안의 암 검사 유무, 지난 2년간(대장암은 5년간) 암종별 각종 검진 수검여부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전화 조상 리스트 중 전화 연결 후, 조사에 성공한 응답율은 서울 37.3%에서 기타 군지역 63.9% 까지 분포하였다. 최종적으로 826명(남자 305명, 여자 521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일생동안 위암,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검진 수검률은 각각 43.9%, 25.4%, 54.5%, 그리고 73.8%로 조사되었다. 최근 2년(대장암은 5년)내 수검률은 각각 37.1%, 20.3%, 43.6%, 그리고 58.5% 였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위의 모든 암종에서 60대 이후에는 암 수검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암 검사에서 전액 본인 부담에 의한 암 검사 실시율이 70% 내외로 높았다.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여성 암의 경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수검률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암 검진 수검이유 중 일부는 증상 때문인 것으